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 공개검증

호돌이의 소원 — 2026년 신(新) 호돌이와 김소원의 애국가



1988 오리지널 호돌이 (좌) · 2026 신(新) 호돌이 (중) · 알파세대 김소원 (우)

“다음 10년을 위한 애국가”

■ 출품작 정보

작품 제목	호돌이의 소원 — 2026년 신(新) 호돌이와 김소원의 애국가
콘티 컷 수	36컷 (프롤로그 3 + 본편 30 + 에필로그 3) · 약 4분 40초
주요 연출 내용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당시 5세)가 38년이 지난 2026년 43세가 되어 돌아와, 당시 호돌이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김현 선생의 손녀 김소원(7세)과 함께 애국가 1~4절을 따라 대한민국의 자연·역사·발전상을 여행하는 뮤직비디오. 실사 로케이션 촬영을 근간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청·KTV 공공 아카이브와 현존 동양화가 협업에 의한 전통회화를 우선 활용하며, 3D CG는 캐릭터 합성과 전환 VFX에 한해 보조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제작 방식. AI 생성 영상은 진본성 원칙에 따라 최소화함.

36 TOTAL CUTS	4:40 RUNTIME	4 PRODUCTION METHODS	4K UHD HDR
-------------------------	------------------------	--------------------------------	----------------------

■ 기획의도 (300자 이내)

『호돌이의 소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였던 5세 호돌이가 38년이 흐른 2026년 43세가 되어 돌아와, 7세 소녀 김소원과 함께 애국가를 따라 대한민국의 자연·역사·현재를 여행하는 배경영상이다.

오늘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88올림픽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본 작품은 **88세대부터 알파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애국가 배경영상**을 만들기 위해 세대 간 **바톤터치**를 핵심 서사로 삼았다.

호돌이와 소원의 **3D캐릭터**는 친근감을 불러일으켜 타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했던 **알파세대에게(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애국가를 보다 친숙하고 친밀한 노래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향후 캐릭터 비즈니스의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실사 로케이션 촬영과 공공 아카이브, 3D CG 캐릭터 합성, AI 영상 기술을 장면 특성에 맞춰 종합, **'길이 보전하세'**의 약속을 세대 계승의 의미로 재해석한다.

■ 스토리라인 — 액자 너머로 떠나는 애국가 여행

88세대의 약속 (호돌이) ↔ 알파세대의 약속 (김소원)

<p>ACT 1 서재의 발견 컷 01</p>	<p>2026년 오후.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김현 선생의 서재. 7세 소녀 김소원이 할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호돌이 액자를 발견한다. 책장과 스케치북이 가득한 따스한 공간, 오후 햇살이 먼지 속에서 반짝인다.</p>
---	---

<p>ACT 2 액자 속의 기적</p>	<p>소원이가 조심스레 액자에 손을 대는 순간 — 푸른 빛이 피어나고 1988년 2D 호돌이가</p>
----------------------------------	--

컷 02

2026년 3D 호돌이로 변신한다. 38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살아나는 마법의 찰나.

ACT 3
여행의 시작

컷 03

살아난 3D 호돌이가 소원에게 앞발을 내민다. 소원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는 순간, 액자는 우주 같은 푸른 포털로 변하고 두 주인공은 함께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ACT 4
애국가 1~4절의
대여정

컷 04 ~ 33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합창에 맞춰 대한민국의 자연(1절) · 역사(2절) · 아픔과 극복(3절) · 현재의 도약(4절)을 따라 여행한다. 독도와 백두산 천지, 단군신화의 수목화 세계, 3·1운동과 6·25 · 4·19 · 5·18 · 6월항쟁을 거쳐 누리호 발사와 K-컬처까지 — 세대를 잇는 감정의 아크를 그린다.

ACT 5
귀환과 세대의 약속

컷 34 ~ 36

여행을 마치고 두 주인공은 액자 밖으로 돌아온다. 호돌이는 소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 88세대가 알파세대에게 건네는 무언의 바톤터치. 호돌이가 다시 액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1988년 원본 2D 호돌이로 정지하고, 윙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END."

1988

서울올림픽 · 호돌이 5세

→ 38년 →

2026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 · 호돌이 43세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린 첫 순간이었다. 이후 38년간 한강의 기적, IT 강국, K-컬처, 누리호 발사로 이어지는 도약은 그날의 자부심에서 시작된 약속의 연장선이다. 본 기획안은 88세대의 기억과 알파세대의 미래를 하나의 애국가로 잇는다.

◆◆ 43세 (1988년 당시 5세)

신(新) 호돌이

1988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 38년 후 2026년 43세



IDENTITY

정체성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의 2026년 재해석 버전. 원작의 5세 소년 호돌이가 38년의 세월을 거쳐 중년의 호랑이로 성장했다는 설정. 88올림픽의 희망과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을 기억하는 존재.

DESIGN

디자인

재해석된 전통 상모(푸른 리본 유지), 오륜(五輪) 금목걸이, 포토리얼리스틱 3D 호랑이. 43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갈기와 깊이 있는 눈매 — 그러나 88올림픽의 유쾌함과 온화함을 간직한 표정. 호랑이 줄무늬 패턴은 원작 호돌이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ROLE

88세대의 약속

1988년의 희망(올림픽에서 시작된 '세계 속 대한민국'의 꿈)을 기억하는 전승자. 소원이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연·역사·현재를 안내하는 길잡이. 중장년 관객에게는 친숙한 향수와 자부심을, 어린 관객에게는 따뜻한 보호자의 이미지를 전달.

EMOTIONAL ARC

감정 아크

초반: 등직한 보호자 → 중반: 역사 속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동반자 → 후반: 소
원에게 점차 이끌리는 동반자. 에필로그에서 소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소원이
에게 윙크하며 잘 될꺼란 희망을 전달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

"원작 호돌이 저작권 및 김현 디자이너 자문은 주관 부처(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협조 하에 진행."

◆◆ 7세 (2026년)

김 소 원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알파세대



IDENTITY

정체성

호돌이 디자이너 김현 선생의 가상의 손녀로 설정된 오리지널 캐릭터. 2026년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국 어린이이자, 88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을 알파세대의 상징.

DESIGN

디자인

무궁화 패턴의 플로럴 셔츠, 카키색 반바지, 하얀 머리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과 자연스러운 미소. 동시대 한국 어린이의 친근하고 건강한 모습. 헤어스타일은 단정한 단발.

ROLE

알파세대의 약속

애국가를 처음 따라 부르는 다음 세대의 상징. **'길이 보전하세'**의 약속을 이어받는 주역.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품었던 꿈을 미래로 이어가는 존재. 어린이·청년 관객에게는 친근한 또래 캐릭터로, 중장년 관객에게는 보호해주고 싶은 미래의 상징으로 기능.

EMOTIONAL ARC

감정 아크

초반: 호돌이를 따라가는 호기심 많은 아이 → 중반: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 → 후반: 호돌이의 손을 먼저 잡아 이끄는 성장.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는 성장 곡선.

* 임물결 오리지널 캐릭터 (저작권 본인 귀속). 본 공모전 수상 시 정부 공식 영상 활용을 위한 비독점 사용권 부여 의사 있음.

■ 캐릭터 사용권 검토사항

본 작품에 등장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디자이너 김현 선생 관련 설정은 다음의 권리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획되었으며, 본선 진출 확정 시 정부 채널을 통한 정식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구분	권리 보유자
호돌이 캐릭터 소유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호돌이 수탁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승계기관)
호돌이 디자인 원작자 (저작인격권)	김현 디자이너 (現 디자인파크 대표)

협의 계획

본 작품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익 목적 영상이나, IOC 권리는 상업·비상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허락을 요구합니다. 본선 진출 시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IOC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한 정식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현 디자이너의 저작인격권 존중 및 캐릭터 김소원의 가족 관계 설정(김현 선생의 손녀)에 대한 동의 확보를 위해, 본선 진출 즉시 디자인파크를 통한 정식 협력 제안 및 공동 크레딧 표기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AI 활용 내역 (공모요강 의무 명시 사항)

본 예선 기획안의 콘셉트 이미지 및 캐릭터 시각화 작업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공모요강 응모자 유의사항 조항("AI 활용 출력작은 공모요강의 AI사용 부분(프롬프트 등)을 미제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에 따라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용 도구	Nano Banana Pro (나노바나나 프로) — AI 이미지 생성 도구
사용 단계	예선 기획안의 콘셉트 이미지 및 스토리보드 시각화 (레퍼런스 용도)
활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돌이 / 김소원 캐릭터 시각 레퍼런스 시트 생성 • 36컷 콘티의 콘셉트 이미지 생성 (스토리보드 시각화) • 시대별 비주얼 톤·무드 레퍼런스 (프로로그 ~ 에필로그)
사용 목적	콘티 기획안의 시각적 전달력 강화를 위한 레퍼런스 / 스토리보드 제작 용도. 최종 영상물의 구성요소가 아님.

본선 단계 AI 사용 계획 (공모요강 준수)

공모요강 본선 규정("AI툴 사용은 컬러·톤 보정, 노이즈 제거 등 보정 작업에 한해 허용. 피사체의 생성·삭제·교체 등 영상 내용 변경은 불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본선 영상의 모든 캐릭터 및 피사체는 실사 로케이션 촬영 또는 정식 3D CG 제작으로 구현하며, AI는 컬러 그레이딩, 노이즈 제거 등 후반 보정 작업에만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피사체 생성·삭제·교체 등 영상 내용 변경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선 진출 시 사용 프롬프트 전체 목록 및 AI 사용 로그는 공모요강 요구 형식에 맞춰 별도 제출합니다.

장면별 영상 연출 계획 — 36컷 상세 콘티

※ 애국가 가사와 영상 장면의 연결성을 설명합니다. 콘티는 애국가 1절~4절 기준 36컷(프롤로그 3 + 본편 30 + 에필로그 3)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컷의 '제작 방식' 칸은 해당 장면에 최적의 구현 방식을 제안합니다 (본선 진출 시 최종 확정).

<p>◆◆ 실사</p> <p>로케이션 촬영</p>	<p>◆◆ 아카이브</p> <p>공공 영상</p>	<p>◆◆ 3D CG</p> <p>캐릭터·VFX</p>	<p>◆◆ 전통회화</p> <p>현존 등양화가 협업</p>
------------------------------------	------------------------------------	---------------------------------------	---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01	프롤로그	00:00~00:07	 <p>3D CG</p>	♪ (전주)	2026년 오후.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디자이너 김현 선생 서재. 책장, 스케치북, 붓이 가득한 따스한 공간. 오후 매직아워 햇살이 먼지 속에서 반짝인다. 7세 손녀 김소원이 서재에 들어와 할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호돌이 액자 (1988 HODORI / DESIGNER KIM HYUN) 앞에 선다. 호기심 어린 큰 눈망울로 벽에 걸린 1988년 오리지널 2D 호돌이를 올려다본다. 카메라: 서재 와이드 톱샷 → 소원이 옆모습 미디엄 → 액자 클로즈업. 이창동 <시>의 창조지 투과 자연광과 봉준호 <괴물> 가족 장면의 온화한 프레이밍, 35mm 렌즈, 한지에 번진 먹빛 같은 엠버·세피아 향수 톤.
02	프롤로그	00:07~00:14	 <p>3D CG</p>	♪ (전주)	소원이가 조심스레 액자에 손가락을 갖다대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빛 소용돌이가 퍼져나가며 별 입자가 피어오른다. 액자 속 1988년 2D 호돌이의 눈이 금빛으로 빛나고 — 2D 평면 일러스트가 38년의 세월을 거슬러 포토리얼리스틱 3D 호랑이 캐릭터로 천천히 변신한다. 상모의 푸른 리본이 생동감 있게 휘날리고, 가슴의 오묘 금목걸이가 빛난다. 액자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43세 3D 호돌이가 앞발을 들고 소원이를 바라본다. 카메라: 소원이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손끝 → 액자 속 변환 과정 크로스 디졸브. 물리 시뮬레이션 + 파티클 VFX.
03	프롤로그	00:14~00:20	 3D CG	♪ (전주)	살아난 3D 호돌이가 액자 안에서 소원이에게 큰 앞발을 내민다. 액자 내부는 우주 같은 푸른 포털로 변해 별무리가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친다. 소원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호돌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이 푸른 빛에 감싸이며 액자 속 포털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호돌이는 앞장서서 포털 안으로 날아가듯 움직이고, 소원이 팔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따라 들어간다. 서재는 푸른 빛으로 물들고,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빛 입자로 흩어진다. 카메라: 포털 정면 → 소원이 뒷모습으로 스위프, 블루 아워 톤, 박찬욱 <헤어질 결심> 이 현실과 기억,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안개로 넘나들듯 — 액자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국적 관문의 정서.
04	1절	00:20~00:28	 실사	♪ 동해물과	장면 전환. 독도 전경의 드론 항공샷. 새벽 햇살 속 파도가 독도 바위를 때린다. 동해의 광활함. 수평선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05	1절	00:28~00:38	 실사 + 3D CG	♪ 백두산이	독도 정상에 선 호돌이가 소원을 어깨에 태운다. 소원의 복장은 민소매 분홍색 원피스에서 모험 복장으로 바뀜. 카메라가 물보라를 뚫고 수직 상승, 구름을 뚫고 나오자 백두산 천지가 펼쳐진다. 실사 드론 촬영 + 3D 캐릭터 합성.
06	1절	00:38~00:48	 실사 + 3D CG	♪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 천지의 하이퍼랩스. 천지의 4계절이 수초로 압축된다. 호돌이와 소원은 천지 가장자리에 서서 그 시간을 지켜본다.
07	1절	00:48~00:58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천지 상공으로 구름이 갈라지며 신비로운 빛줄기가 수직으로 내려온다. 실사 하늘 드론 촬영 + 3D 캐릭터 합성 + 한국 민화 <일월오봉도>에서 차용한 빛줄기 색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실사 + 아카이브 + 3D CG —		감. 성스러운 분위기 — 겸재 정선의 진경 산수 전통을 현대 영상 언어로 계승.
08	1절 후렴	00:58~01:06	 전통회화 + 3D CG —	♪ 무궁화	현존 동양화가(박대성·김호석 계보) 협업으로 제작된 진본 수묵화로 장면 전환. 단군 신화 —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 한지 위 먹의 번짐과 여백의 미학을 그대로 영상화. 호돌이와 소원이가 수묵화 속 여행자처럼 실루엣으로 걸어간다. 간송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대 회화의 필법을 현대 화가의 손으로 재해석.
09	1절 후렴	01:06~01:14	 전통회화 + 실사 —	♪ 삼천리 화려강산	꿈이 여인으로 변하는 웅녀 신화의 신비로운 장면 — 동양화가 협업에 의한 수묵담채 기법으로 제작. 먹의 번짐이 점차 민화의 오방색 채색화로 전환되면서, 백두산에서 내려다본 무궁화 들판이 산맥을 따라 삼천리로 펼쳐지는 실사 항공 드론샷으로 이어진다. 전통 회화 → 실사 자연로의 시간 이행.
10	1절 후렴	01:14~01:22	 아카이브 + 3D 스캔 —	♪ 대한사람 대한으로	문화재청·동북아역사재단 소장 공개토대왕비 3D 스캔 아카이브를 활용한 360° 회전샷. 비문의 한자가 금빛으로 빛난다. 만주별판 실사 드론 아카이브 위로 장엄한 구름이 흐른다. 진본 비석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한 고증 영상.
11	1절 후렴	01:22~01:30	 전통회화 + 3D CG —	♪ 길이 보전하세	만주별판을 질주하는 고구려 기마군단 — 고구려 고분벽화(무용총 수렵도·쌍영총) 원형을 현존 동양화가가 동영상화한 실루엣와이드샷. 발해의 광활한 영토가 고지도 위에 펼쳐진다. 호돌이가 소원에게 고지도를 펼쳐 보여주는 মিডি엄샷 — 규장각 소장 진본 고지도 아카이브 참조.
12	2절	01:30~01:37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 고목 소나무를 로우앵글로 올려다보는 드론샷.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뽀은 소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실사 + 3D CG		나무 가지. 나무껍질 매크로 클로즈업.
13	2절	01:37~01:44	 3D CG	♪ 철갑을 두른 듯	VFX: 소나무 껍질이 점차 갑옷 철편처럼 변하며 금속성 광택으로 빛난다. 호돌이가 나무에 손을 대자 껍질이 고려갑옷으로 확장되는 트랜지션.
14	2절	01:44~01:52		♪ 바람서리 불변함 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청자상감운학 문매병> 3D 스캔 아카이브로 360° 회전 — 비색이 빛을 반사.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의 판본을 근거로, 세종대왕의 붓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다. 진본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의 고증 영상.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p>박물관 아카이브 + 3D CG —</p>		
15	2절	01:52~02:00	 <p>3D CG + 아카이브</p>	♪ 우리 기상일세	거북선이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와이드 샷. 이순신 장군의 실루엣이 뱃머리에 장엄하게 서 있다. 거북선 복원선 촬영 + 3D CG 폭풍 VFX.
16	2절 후렴	02:00~02:07	 <p>아카이브 + 3D CG</p>	♪ 무궁화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장면 —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 판본을 근거로 한 고증 영상. 한지 위에 먹으로 써 내려가는 한글 자모가 화면 가득 흐른다. 경복궁 근정전 실사 아카이브 + 3D 합성. 호돌이와 소원이가 궁궐 기단 위에서 한글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무궁화가 피어난 궁궐 정원을 배경으로 '우리 글'의 자궁이 빛난다.
17	2절 후렴	02:07~02:15	 <p>아카이브 + 3D CG</p>	♪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시대 왕실 의궤 행렬의 장엄한 재현 — 규장각 소장 <원행음묘정리의궤> 진본 도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 색채 복원. 오방색 의장기·취타대·어가 행렬이 삼천리를 가로지른다. 현존 민화 화가 협업으로 제작된 전통회화 레이어. 호돌이와 소원이가 행렬 옆에서 함께 걸으며 왕조 문화의 화려함을 목격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아카이브 활용.
18	2절 후렴	02:15~02:22		♪ 대한사람 대한으로	김홍도 <단원풍속도첩>과 신윤복 <혜원전신첩>의 세계로 진입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진본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서당·씨름·주막·빨래터의 정경이 살아 움직이는 전통회화 애니메이션. 현존 동양화가 협업으로 정지 도상을 동영상화. 풍속화 속 조선 서민의 일상 장면들이 파노라마로 이어지며, 호돌이와 소원이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다. '대한사람'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p>아카이브 + 3D CG</p>		우리의 정체성임을 증언.
19	2절 후렴	02:22~02:30	 <p>아카이브 + 3D CG</p>	♪ <i>길이 보전하세</i>	판소리 고수의 북채가 내리치는 매크로 클로즈업 —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원 아카이브 협조. 명창의 목소리가 화면을 울리며, 북장단에 맞춰 장면이 하회별신굿 탈춤으로 전환된다. 양반탈·각시탈·이매탈의 춤사위가 흥겹게 펼쳐지고, 농악대의 상모돌리기가 원을 그린다. 호돌이 머리의 상모가 탈춤꾼의 상모와 겹치며 '이 전통의 끝에 호돌이가 있다'는 시각적 계보를 드러낸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협업.
20	3절	02:30~02:37	 <p>아카이브 + 3D CG</p>	♪ <i>가을 하늘 공활한 데</i>	톤이 거친 흑백 다큐멘터리로 급전환. 찢어진 태극기 클로즈업 — 태극 문양만 유일한 컬러 포인트로 강조된다. 공활한 가을 하늘이 먹먹하게 비어 있고, 그 아래 찢긴 깃발만이 바람에 흔들린다.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 변곡점.
21	3절	02:37~02:45	 <p>실사 + 아카이브</p>	♪ <i>높고 구름 없이</i>	3·1운동 만세 행렬이 핸드헬드 카메라로 전진한다. 흑백 화면 속 수천 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화문 앞을 행진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 아래, 한 목소리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사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활용.
22	3절	02:45~02:52	 <p>아카이브</p>	♪ <i>밝은 달은 우리 가슴</i>	흑백 다큐멘터리 톤.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 손바닥 도장 클로즈업 — 잘린 약지 끝에서 배어난 인주가 깊은 회색 음영으로 번지며 흑백 화면을 뚫고 태극 문양을 그린다. 윤봉길 의사의 시계 교환 장면 실루엣. 화면 전체가 흑백인 가운데 호돌이(상모의 푸른 리본·오른 금목걸이)와 소원이(무궁화 플로럴 셔츠)만 온전한 컬러로 남아, 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상징한다. 스피버그 <선들러 리스트>의 빨간 코트 기법을 한국적 역사 애도로 재해석. 가슴에 품은 밝은 달 — 독립의 꿈은 꺼지지 않는 단심(丹心).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23	3절	02:52~03:00	 실사 + 3D CG	♪ <i>일편단심일세</i>	유관순 열사를 형상화한 실루엣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짓밟힌 무궁화가 다시 피어오르는 타임랩스. 흑백 화면을 뚫고 희망의 빛줄기가 내려와 무궁화를 컬러로 되살린다. 열여섯 소녀의 일편단심 — 죽음으로 지킨 꽃이 다시 피는 순간. 호돌이가 소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너와 같은 아이가 이 나라를 지켰다'는 묵언의 연결을 표현.
24	3절 후렴	03:00~03:07	 아카이브 + 3D CG	♪ <i>무궁화</i>	해방의 환희 직후, 다시 닥친 비극 — 6·25 전쟁. 폭격 장면 실루엣. 피란민 행렬이 눈발을 끝없이 걸어간다. 검게 그을린 폐허의 서울 전경. 국가기록원-KBS 아카이브 협조. 무궁화가 다시 짓밟히는 시대, 그러나 꽃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뿌리를 버티고 있다.
25	3절 후렴	03:07~03:15	 아카이브 + 3D CG	♪ <i>삼천리 화려강산</i>	폐허 위로 하늘이 서서히 맑아진다. 카메라가 수직 틸트업하며 내장산 단풍 캐노피를 지나 완벽하게 투명한 가을 하늘이 프레임 가득 채운다. 폐허에서 단풍으로 — 고난을 이겨낸 삼천리의 회복. 호돌이와 소원이 단풍 터널 아래를 나란히 걸어간다.
26	3절 후렴	03:15~03:22	 아카이브 + 3D CG	♪ <i>대한사람 대한으로</i>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 포항제철 용광로 점화 → 현대조선 진수식 → 4·19 혁명 학생 행진 → 5·18 금남로 시민 → 6월 민주항쟁 넥타이 부대 → 태극기를 든 시민의 실루엣.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한 호흡으로 엮은 긴 몽타주 —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사람'의 자화상. 국가기록원-KBS 뉴스릴 아카이브 총동원. 각 장면이 1초 내외로 빠르게 이어지며 리듬을 만든다.
27	3절 후렴	03:22~03:30	 실사 + 아카이브 +	♪ <i>길이 보전하세</i>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 KTV-KBS 공식 아카이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오른기가 게양되고, 굴렁쇠 소년이 텅 빈 경기장을 가로지른다. 카메라가 느리게 팬하면, 트랙 저편에 1988년 오리지널 2D 호돌이가 작은 실루엣으로 서 있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3D CG		다. 43세 3D 호돌이가 천천히 걸어가 자기 과거와 마주 선다.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자, 2D 호돌이가 올라다보며 미소짓는다. 두 호돌이가 앞발을 맞댄 순간 — 2D 호돌이가 빛의 입자로 흩어져 3D 호돌이의 가슴으로 스며든다. 소원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길이 보전 하세' —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 3절의 감정 클라이막스.
28	4절	03:30~03:37	 실사 + 아카이브 + 3D CG —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반도체 클린룸의 매크로 샷. 하얀 방진복의 엔지니어들이 실리콘 웨이퍼를 다룬다. 칩 위에 태극 문양이 미세하게 새겨지는 클로즈업.
29	4절	03:37~03:45	 아카이브 + 3D CG	♪ 충성을 다하여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로봇 팔이 정밀하게 조립한다. 조선소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진수된다.
30	4절	03:45~03:52	 아카이브 + 3D CG	♪ 괴로우나 즐거우나	K-9 자주포 사격훈련의 웅장한 발사 장면. F-15K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 이지스함이 출항하는 와이드샷.
31	4절	03:52~04:00	 아카이브 + 3D CG	♪ 나라 사랑하세	누리호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다.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성층권으로 상승하는 시네마틱 샷.
32	4절 후렴	04:00~04:07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BTS 스타디움 공연의 항공샷 — 보라빛 야미밤이 별처럼 빛나는 거대한 바다. 기생충·오징어게임 오스카·에미 트로피. 2002 월드컵 거리응원. K-컬처 몽타주.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p>아카이브 + 3D CG</p>		
33	4절 후렴	04:07~04:15	<p>실사 + 3D CG</p>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p>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짓는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와 농촌, 바다와 산. 모든 시대·장면의 잔상이 빛의 입자가 되어 호돌이와 소원이 주위로 수렴한다.</p>
34	에필로그	04:15~04:23	 <p>3D CG</p>	♪ (후주)	<p>4절 후렴의 여운이 찾아들며 장면은 다시 김현 선생의 서재로 돌아온다. 여행을 마친 호돌이와 소원이가 푸른 포털에서 빠져나와 액자 밖으로 내려선다. 포털의 푸른 빛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별 입자들이 따스한 엠버빛으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소원의 옷자락과 머리띠가 바람의 잔상처럼 살짝 휘날리고, 그녀의 눈에는 긴 여행을 마친 뒤의 경이와 깊이가 담긴다. 호돌이는 여전히 소원의 손을 잡고 있다. 석양빛이 창문으로 길게 비쳐 들어와 두 주인공의 옆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카메라: 포털 소멸 와이드 → 두 사람의 투숫 미디엄, 얇은 심도.</p>
35	에필로그	04:23~04:31	 <p>3D CG</p>	♪ (후주)	<p>서재의 깊은 석양 버건디·엠버 톤. 호돌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소원과 눈높이를 맞춘다. 그의 큰 호랑이 앞발이 소원의 작은 머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 단정한 단발머리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38년의 세월을 건너온 손길 — 88세대가 알파세대에게 전하는 무언의 약속. 소원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진다. 호돌이의 깊은 눈매에도 자량과 감사가 어린다. 상모의 푸른 리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따스하게 흔들린다. 카메라: 얇은 심도 미디엄 투숫 슬로 오빗, 역광이 두 캐릭터의 실루엣을 감싼다. 이창동 <시>의 윤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던 그 조용한 송고, 봉준호 <기생충> 결말부의 말없는 감정 여백처럼 — 설명하지 않고 스며드는 한국적 감정선.</p>

NO	애국가 소절	시간대	제작 방식	가사	장면 설명
36	에필로그	04:31~04:40	 <p data-bbox="660 607 732 633">3D CG</p>	♪ (후주) / END	<p>호돌이가 소원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쥐고 일어선다. 천천히 액자 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의 포토리얼 3D 형체가 서서히 1988년 오리지널 2D 일러스트로 역변환된다 — 털이 평면 선으로, 입체감이 플랫 컬러로. 액자 안에 원본 1988년 2D 호돌이의 아이콘 포즈(앞발 들어올린 상모 인사)로 정지. 소원이 액자 앞에서 작은 손을 흔든다. 그 순간 액자 속 2D 호돌이의 한쪽 눈이 "깜빡" — 장난스러운 윙크. 소원이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린다.</p> <p>카메라: 호돌이 3D→2D 역변환 미디어엄 → 풀백해 서재 와이드 → 창 밖 깊은 석양 → 페이드아웃, "END" 타이포그래피가 태극 팔괘 파티클과 함께 부드럽게 떠오른다.</p>

호돌이의 소원

36컷 디테일 이미지 & 제작 방법 제안

2026년 신(新) 호돌이와 김소원의 애국가

“다음 10년을 위한 애국가”

◆ 본 프롬프트 시트의 목적

본 시트는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 기획안의 시각적 구현 계획서입니다. 36컷 전체에 대해 콘셉트 이미지와 제작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본 작품의 제작 원칙은 ① 실사 로케이션 촬영 우선, ② 국립박물관·문화재청·KTV 공공 아카이브 적극 활용, ③ 전통 분야는 현존 동양화가·무형문화재 전수자와의 협업을 통한 진본성 확보, ④ 3D CG는 캐릭터 합성과 시대 전환 VFX에 한정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 생성 영상은 진본성·장인정신 원칙에 따라 최소화하며, 본선 진출 시 정부·공공기관 지원 아카이브를 최대한 우선 활용합니다.

◆ 문서 구성

- 캐릭터 디자인 — (호돌이) · (김소원) 상세 소개
- 36컷 인덱스 — 전체 제작 방식 매트릭스
- 개별 컷 시트 — 컷당 1p × 36p
 - 재현 고난도 7컷 (컷 7, 8, 9, 10, 11, 14, 28): 아카이브·전통회화 협업 상세 계획 수록
 - 실사·아카이브 29컷: 이미지 삽입 영역 + 컷 번호 표기

36 TOTAL CUTS	4:40 RUNTIME	7 시대전환 VFX	29 실사·아카이브·CG
-------------------------	------------------------	----------------------	-------------------------

36컷 인덱스 — 제작 방식 매트릭스

NO	섹션	장면 제목	제작 방식	비고
01	프롤로그	서재 발견 — 할아버지 책상 위의 호돌이 액자	3D CG	—
02	프롤로그	액자 터치 — 2D 호돌이 → 3D 호돌이 변신	3D CG	—
03	프롤로그	여행의 시작 — 손 맞잡고 액자 속으로	3D CG	—
04	1절	독도 드론 항공샷	실사	—
05	1절	독도 → 백두산 천지 수직 상승	실사 + 3D CG	—
06	1절	백두산 천지 하이퍼랩스	실사 + 3D CG	—
07	1절	백두산 빛줄기 강림	실사 + 아카이브 + 3D CG	—
08	1절 후렴	단군신화 — 환웅 태백산 강림	전통회화 + 3D CG	—
09	1절 후렴	웅녀 신화 → 무궁화 들판 모핑	전통회화 + 실사	—
10	1절 후렴	광개토대왕비 360° 회전	아카이브 + 3D 스캔	—
11	1절 후렴	고구려 기마군단 실루엣 + 발해 고지도	전통회화 + 3D CG	—
12	2절	남산 고목 소나무 로우앵글	실사 + 3D CG	—
13	2절	소나무 껍질 → 철갑 변환 VFX	3D CG	—
14	2절	고려청자 360° + 훈민정음 붓글씨	박물관 아카이브 + 3D CG	—
15	2절	거북선 폭풍 항해 + 이순신 장군	3D CG + 아카이브	—
16	2절 후렴	훈민정음 반포 — 한글 창제의 빛	아카이브 + 3D CG	—
17	2절 후렴	조선 의궤 행렬 — 왕실 문화의 장엄	아카이브 + 3D CG	—
18	2절 후렴	김홍도·신윤복 풍속화 — 대한사람의 일상	아카이브 + 3D CG	—
19	2절 후렴	판소리·탈춤·농악 — 상모의 계보	아카이브 + 3D CG	—

NO	섹션	장면 제목	제작 방식	비고
20	3절	찢어진 태극기 — 공활한 하늘 아래	아카이브 + 3D CG	—
21	3절	3·1 만세 행렬 — 높고 구름 없는 하늘	실사 + 아카이브	—
22	3절	안중근 단지 — 가슴의 밝은 달	아카이브	—
23	3절	유관순 → 무궁화 부활 — 일편단심	실사 + 3D CG	—
24	3절 후렴	6·25 피란민 — 얼어붙은 땅의 뿌리	아카이브 + 3D CG	—
25	3절 후렴	폐허 → 내장산 단풍 — 삼천리의 회복	아카이브 + 3D CG	—
26	3절 후렴	한강의 기적 + 민주화 몽타주 — 대한사람의 자화상	아카이브 + 3D CG	—
27	3절 후렴	1988 서울올림픽 — 호돌이가 자기 과거와 만나다 ★	실사 + 아카이브 + 3D CG	—
28	4절	반도체 클린룸 + 태극 문양 칩	실사 + 아카이브 + 3D CG	—
29	4절	자동차 생산 → 조선소 진수식	아카이브 + 3D CG	—
30	4절	K-방산 — K-9 · F-15K · 이지스함	아카이브 + 3D CG	—
31	4절	누리호 발사	아카이브 + 3D CG	—
32	4절 후렴	K-컬처 몽타주 — BTS · 오스카 · 월드컵	아카이브 + 3D CG	—
33	4절 후렴	시민 모자이크 → 빛 입자 수렴	실사 + 3D CG	—
34	에필로그	여행을 마치고 — 액자 밖으로 귀환	3D CG	—
35	에필로그	따스한 손길 — 호돌이가 소원의 머리를 쓰다듬다	3D CG	—
36	에필로그	액자로 귀환 → 2D 호돌이 윙크 → END	3D CG	—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0:00~00:07

◆ 장면 설명

2026년 오후.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디자이너 김현 선생 서재. 책장, 스케치북, 붓, 호돌이 원화가 가득한 따스한 공간. 오후 매직아워 햇살이 먼지 속에서 반짝인다. 7세 손녀 김소원이 서재에 들어와 할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호돌이 액자(1988 HODORI / DESIGNER KIM HYUN) 앞에 선다. 호기심 어린 큰 눈망울로 액자속의 1988년 오리지널 2D 호돌이를 올려다본다. 카메라: 서재 와이드 롱샷 → 소원이 옆모습 미디엄 → 액자 클로즈업. 이창동 <시>의 창호지 투과 자연광과 봉준호 <괴물> 가족 장면의 온화한 프레이밍, 35mm 렌즈, 한지에 번진 먹빛 같은 앰버·세피아 향수 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0:07~00:14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0:07~00:14

◆ 장면 설명

소원이가 조심스레 액자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빛 소용돌이가 퍼져나가며 별 입자가 피어오른다. 액자 속 1988년 2D 호돌이의 눈이 금빛으로 빛나고 — 2D 평면 일러스트가 38년의 세월을 거슬러 포토리얼리스틱 3D 호랑이 캐릭터로 천천히 변신한다. 상모의 푸른 리본이 생동감 있게 휘날리고, 가슴의 오륜 금목걸이가 빛난다. 액자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43세 3D 호돌이가 앞발을 들고 소원을 바라본다. 카메라: 소원이 손끝 → 액자 속 변환 과정 크로스 디졸브. 물리 시뮬레이션 + 파티클 VFX.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분선 시 확정)

00:14~00:20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0:14~00:20

◆ 장면 설명

살아난 3D 호돌이가 액자 안에서 소원에게 큰 앞발을 내민다. 액자 내부는 우주 같은 푸른 포털로 변해 별무리가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친다. 소원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호돌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이 푸른 빛에 감싸이며 액자 속 포털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호돌이는 앞장서서 포털 안으로 날아가듯 움직이고, 소원이 팔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따라 들어간다. 서재는 푸른 빛으로 물들고,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빛 입자로 흩어진다. 카메라: 포털 정면 → 소원이 뒷모습으로 스위프, 블루 아워 톤, 박찬욱 <헤어질 결심>이 현실과 기억,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안개로 넘나들듯 — 액자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국적 관문의 정서.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시간대 00:20~00:28

가사 ♪ 동해물과

◆ 장면 설명

장면 전환. 독도 전경의 드론 항공샷. 새벽 햇살 속 파도가 독도 바위를 때린다. 동해의 광활함. 수평선이 황금 빛으로 물든다. 촬영 시간대는 일출 전 블루아워에서 일출 직후 골든아워까지.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3D CG

시간대 00:28~00:38

가사 ♪ **백두산이**

◆ 장면 설명

카메라가 독도 정상을 슬로우 줌인 한다. 독도 정상에 선 호돌이가 소원이를 어깨에 태운다. 카메라가 물보라를 뚫고 수직 상승, 구름을 뚫고 나오자 백두산 천지가 펼쳐진다. 실사 드론 촬영 + 3D 캐릭터 합성.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3D CG

시간대 00:38~00:48

가사 ♪ 마르고 닳도록

◆ 장면 설명

백두산 천지의 하이퍼랩스. 천지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고 천지의 사계절이 수 초로 압축된다. 호돌이와 소원이는 천지 가장자리에 서서 그 시간을 지켜본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0:48~00:58

가사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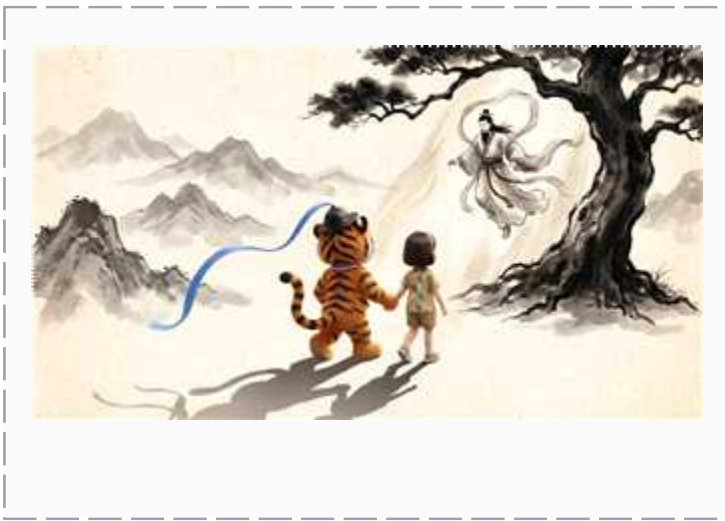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성스러운 분위기의 포토리얼리스틱 하늘 + 3D 캐릭터 + 볼류메트릭 라이트 VFX 합성 장면입니다.

백두산 천지 상공에서 거대한 적란운(cumulonimbus) 구름들이 극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신비로운 황금빛 태양광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갓레이(God-rays), 크레푸스쿨러 레이(crepuscular rays)가 형성됩니다. 공기 중 수증기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켜 빛줄기가 실체로 보이는 볼류메트릭 라이팅 효과입니다.

화면 전경 미디엄 샷에는 (호돌이)와 (김소원)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김소원)은 고개를 곧게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에 온전히 비취집니다. 감탄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 눈이 반짝입니다. 그 옆에 (호돌이)가 두 팔을 옆으로 활짝 벌리고 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의 실루엣이 강한 역광 속에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상모 리본이 빛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오륜 목걸이가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카메라: 로우앵글 미디엄 와이드, 35mm 시네마 렌즈, 강한 백라이팅으로 두 인물이 실루엣과 역광 하이라이트의 경계에 있도록 연출.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HDR 톤매핑, 영화적 컬러 그레이딩 (골든 아워).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전통회화 + 3D CG

시간대 00:58~01:06

가사 ♪ 무궁화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한국 전통 수묵화(水墨畫, sumukhwa) 스타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술적 배경에 3D 캐릭터가 실루엣으로 녹아든 신화적 장면입니다. 고(古) 한지 질감 위에 먹(墨)이 번지는 감성이 핵심입니다.

배경은 단군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강림하는 신화적 순간. 먹 붓터치가 실제로 흐르고 번지는 것처럼 움직이며, 산의 윤곽선이 거친 붓질로 그려집니다. 안개 낀 먼 산들이 열린 먹 그라데이션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조선 시대 겸재 정선 화풍), 신단수 거대한 나무 가지 아래에 환웅의 실루엣이 신비롭게 서 있습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며 자연스러운 블루밍(blooming) 효과가 생동감을 줍니다.

화면 중앙에는 (호돌이)와 (김소원)이 수묵화 안으로 걸어 들어간 여행자의 실루엣으로 등장합니다. 두 캐릭터는 3D이지만 채도가 낮고 톤이 수묵화와 어우러지도록 후보정되어, 마치 그림 속 인물처럼 보입니다. (김소원)이 (호돌이)의 큰 손을 꼭 잡고, 둘이 함께 신단수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환웅의 강림 빛이 배경에서 쏟아지며, 두 여행자의 그림자가 한지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스타일: 전통 한국 수묵화 + 시네마틱 3D 합성, 낮은 채도, 먹 번짐 효과, 한지 질감 오버레이,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전통회화 + 실사

시간대 01:06~01:14

가사 ♪ 삼천리 화려강산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수목화에서 포토리얼리스틱 실사 항공 영상으로 매끄럽게 모핑(morph)하는 극적 전환 장면입니다.

전반부: 수목화 안에서 웅녀(熊女) 신화가 펼쳐집니다. 동굴 속 검은 곰이 먹 붓터치로 그려진 후, 100일의 인고 끝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몽환적 이미지입니다. 곰의 털과 여인의 한복 치맛자락이 먹으로 흐릿하게 겹쳐지며 변신 과정을 시각화합니다. 배경에는 한지에 번진 산과 안개가 보입니다.

후반부: 붓터치가 점차 컬러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 먹의 검정이 열어지고, 그 자리에 분홍과 연분홍이 피어나며, 수목 선들이 무궁화(Rose of Sharon) 꽃잎으로 변합니다. 변화가 완성되면 완전히 포토리얼한 드론 항공 시점으로 전환 — 백두대간 산맥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무궁화 들판이 드러납니다. 분홍·흰색 꽃들이 융단처럼 산등성이를 덮고,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집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가 시각화된 압도적 와이드 리빌.

(호돌이)와 (김소원)은 후반부에서 항공 시점 아래 무궁화 들판 한가운데 작은 점으로 보이다가, 카메라가 서서히 하강하며 두 사람의 미디엄 샷으로 전환됩니다. (김소원)이 무궁화를 한 송이 꺾어 (호돌이)의 상모에 꽂아주는 따스한 순간.

스타일: 수목화 → 컬러 수채 → 포토리얼리스틱으로 이어지는 3단계 모핑. 드론 항공 시네마토그래피,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스캔

시간대 01:14~01:22

가사 ♪ **대한사람 대한으로**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고대 고구려 유적의 장엄한 360도 서클링 촬영 장면. 포토리얼리스틱 스톤 유적 + 3D 캐릭터 + 한자 발광 VFX의 합성입니다.

화면 중앙에 고구려 광개토대왕비(好太王碑)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실제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높이 약 6.4m의 거대한 화강암 비석을 사실적으로 재현합니다. 비석 표면에는 고구려 한자 예서체(隸書) 1,775자가 깊게 음각되어 있으며, 풍화되어 마모된 세월의 흔적이 실감납니다. 비석을 둘러싼 배경은 만주 평원 —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초원이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 있고, 먼 지평선에는 장엄한 적운(積雲)이 흐릅니다.

VFX: 비석에 새겨진 한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씩 황금빛으로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永樂', '國岡上廣開土境 平安好太王' 같은 글자들이 순차적으로 빛납니다.

화면 하단에 (호돌이)와 (김소원)이 비석 아래에 서 있습니다. 비석의 거대한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 두 캐릭터는 비석 높이의 1/6 정도로 작게 보입니다. (김소원)이 비석을 올려다보며 손을 내밀어 음각된 한자를 만지려 하고, (호돌이)가 그녀의 어깨에 큰 손을 얹은 채 함께 올려다봅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저녁 노을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 느리고 장엄한 360도 서클링 크레인 샷. 비석을 중심으로 공전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전통회화 + 3D CG

시간대 01:22~01:30

가사 ♪ *길이 보전하세*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고대 고구려의 영광과 발해의 광대한 영토를 시각화한 두 레이어 구성 장면. 고구려 고분벽화(무용총 수렵도·쌍영총) 원형을 현존 동양화가가 동영상화한 전통회화 레이어 + 만주 벌판 실사 드론 아카이브 + 3D 캐릭터 합성입니다.

후경(배경): 지평선 너머 만주 평원에서 수천 명의 고구려 기마병 군단이 실루엣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두르고 긴 창과 깃발을 든 기마병들이 일제히 복진합니다. 말발굽이 일으키는 황토 먼지 구름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깃발의 태극 문양과 삼족오(三足烏) 상징이 황혼 속에 펄럭입니다. 전장의 웅장함을 먼 실루엣으로 표현 (얼굴은 보이지 않음).

전경: 지면에 낡은 양피지 위에 그려진 고대 한국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발해(渤海)의 광대한 영토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호돌이)가 지도 한쪽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큰 호랑이 손가락으로 지도 경계선을 부드럽게 짚으며 (김소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소원)은 지도 반대편에 앉아 큰 눈을 반짝이며 호돌이의 손가락을 쫓아 지도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표정에 '우와, 이렇게 컸었구나!' 하는 경이가 담겨 있습니다.

일몰 빛이 두 사람과 지도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배경의 기마군단 실루엣은 아웃포커싱되어 꿈결 같은 환상감을 연출합니다.

카메라: 전경 미디엄 클로즈업에서 서서히 달리 아웃되며 후경의 기마군단이 프레임에 들어옴.

스타일: 고대사 재현 + 판타지 감성, <반지의 제왕> 도입부 같은 서사시적 오프닝.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3D 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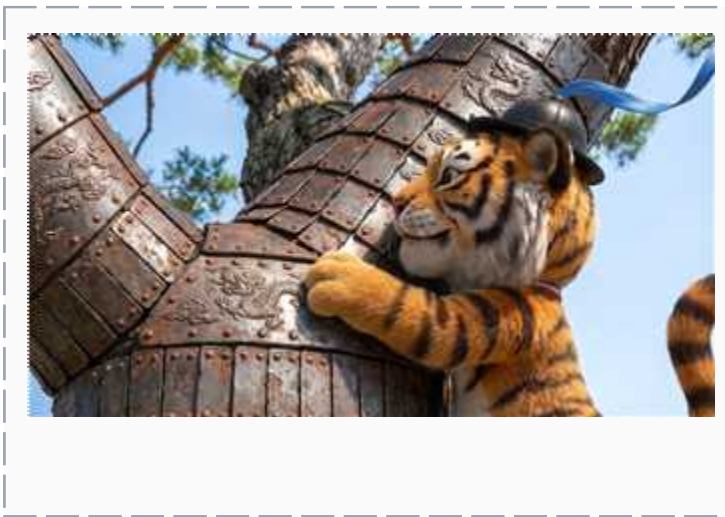
시간대 01:30~01:37

가사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 장면 설명

남산 고목 소나무를 로우앵글로 올려다보는 드론샷.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뽀얀 소나무 가지, 나무껍질 매크로 클로즈업.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1:37~01:44

가사 ♪ 철갑을 두른 듯

◆ 장면 설명

VFX: 소나무 껍질이 점차 갑옷 철편처럼 변하며 금속성 광택으로 빛난다. 호돌이가 나무에 손을 대자 껍질이 고려갑옷으로 확장되는 트랜지션.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박물관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1:44~01:52

가사 ♪ *바람서리 불변함은*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의 프리미엄 유물 촬영 + 3D 캐릭터 합성 장면. 한국 문화 유산의 정수를 시각화합니다.

화면은 좌우 스플릿 혹은 매끄러운 전환 구조로 구성됩니다.

좌측/전반부: 고려 청자 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瓶) 하나가 검은 벨벳 위에서 360도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고려 특유의 비색(翡色, 비취색) 유약이 조명 각도에 따라 청록·에메랄드·민트 그린으로 변화하며 반짝입니다. 표면의 상감(象嵌) 운학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 구름과 학 무늬가 백색·흑색 상감으로 우아하게 배치. 매병의 매끄러운 곡선 실루엣이 조명 속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우측/후반부: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원본이 장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친필이라 전해지는 한자와 한글이 쓰여진 장면으로, 실시간 애니메이션으로 붓이 한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한글 자음 'ㄱ, ㄴ, ㄷ, ㄹ, ㅁ'이 하나씩 써 내려가집니다. 먹이 한지에 스며드는 순간이 매크로로 포착됩니다. 한지의 질감과 먹의 광택이 극사실적입니다.

(호돌이)와 (김소원)은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전시품 앞에 서 있습니다. (호돌이)는 뒷짐을 지고 진중하게 매병을 응시하고, (김소원)은 유리 진열장에 코를 거의 닿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경이로운 눈으로 유물을 관찰합니다. 둘의 실루엣이 박물관의 집중 조명 속에 우아하게 드러납니다.

조명: 박물관 스포트라이트, 검은 배경, 하이 콘트라스트. 카메라는 부드럽게 팬하며 유물의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스타일: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영상 + BBC <문명> 다큐멘터리 수준의 품격.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 아카이브

시간대 01:52~02:00

가사 ♪ *우리 기상일세*

◆ 장면 설명

거북선이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와이드샷. 이순신 장군의 실루엣이 뱃머리에 장엄하게 서 있다. 거북선 복원
선 촬영 + 3D CG 폭풍 VFX.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2:00~02:07

가사 ♪ 무궁화

◆ 장면 설명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장면 —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 판본을 근거로 한 고증 영상. 한지 위에 먹으로 써 내려가는 한글 자모가 화면 가득 흐른다. 경복궁 근정전 실사 아카이브 + 3D 합성. 호돌이와 소원이가 궁궐 기단 위에서 한글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무궁화가 피어난 궁궐 정원을 배경으로 '우리 글'의 자궁이 빛난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2:07~02:15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2:07~02:15

가사 ♪ 삼천리 화려강산

◆ 장면 설명

조선시대 왕실 의궤 행렬의 장엄한 재현 — 규장각 소장 <원행을묘정리의궤> 진본 도상을 기반으로 한 전통 색채 복원. 오방색 의장기·취타대·어가 행렬이 삼천리를 가로지른다. 현존 민화 화가 협업으로 제작된 전통회화 레이어. 호돌이와 소원이가 행렬 옆에서 함께 걸으며 왕조 문화의 화려함을 목격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아카이브 활용.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2:15~02:22

가사 ♪ **대한사람 대한으로**

◆ 장면 설명

김홍도 <단원풍속도첩>과 신윤복 <혜원전신첩>의 세계로 진입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진본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서당·씨름·주막·빨래터의 정경이 살아 움직이는 전통회화 애니메이션. 현존 동양화가 협업으로 정지 도상을 동영상화. 풍속화 속 조선 서민의 일상 장면들이 파노라마로 이어지며, 호돌이와 소원이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다. '대한사람'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증언.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2:22~02:30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2:22~02:30

가사 ♪ *길이 보전하세*

◆ 장면 설명

판소리 고수의 북채가 내리치는 매크로 클로즈업 —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원 아카이브 협조. 명창의 목소리가 화면을 울리며, 북장단에 맞춰 장면이 하회별신굿 탈춤으로 전환된다. 양반탈·각시탈·이매탈의 춤사위가 흥겹게 펼쳐지고, 농악대의 상모돌리기가 원을 그린다. 호돌이 머리의 상모가 탈춤꾼의 상모와 겹치며 '이 전통의 끝에 호돌이가 있다'는 시각적 계보를 드러낸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협업.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2:30~02:37

가사 ♪ 가을 하늘 공활한데

◆ 장면 설명

톤이 거친 흑백 다큐멘터리로 급전환. 찢어진 태극기 클로즈업 — 태극 문양만 유일한 컬러 포인트로 강조된다. 공활한 가을 하늘이 멍멍하게 비어 있고, 그 아래 찢긴 깃발만이 바람에 흔들린다.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 변곡점.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아카이브

시간대 02:37~02:45

가사 ♪ **높고 구름 없이**

◆ 장면 설명

3·1운동 만세 행렬이 핸드헬드 카메라로 전진한다. 흑백 화면 속 수천 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화문 앞을 행진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 아래, 한 목소리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사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활용.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시간대 02:45~02:52

가사 ♪ **밝은 달은 우리 가슴**

◆ 장면 설명

흑백 다큐멘터리 톤.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손바닥 도장 클로즈업 — 잘린 약지 끝에서 배어난 인주가 깊은 회색 음영으로 번지며 흑백 화면을 뚫고 태극 문양을 그린다. 윤봉길 의사의 시계 교환 장면 실루엣. 화면 전체가 흑백인 가운데 호돌이(상모의 푸른 리본·오륜 금목걸이)와 소원이(무궁화 플로럴 셔츠)만 온전한 컬러로 남아, 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상징한다. 스피버그 <선들러 리스트>의 빨간 코트 기법을 한국적 역사 애도로 재해석. 가슴에 품은 밝은 달 — 독립의 꿈은 꺼지지 않는 단심(丹心).

소원은 호돌이 품에 얼굴을 살짝 기대고, 역사를 직시하기에는 아직 어린 시선이 흔들리는 듯한 표정. 호돌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준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3D CG

시간대 02:52~03:00

가사 ♪ 일편단심일세

◆ 장면 설명

유관순 열사를 형상화한 실루엣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짓밟힌 무궁화가 다시 피어오르는 타임랩스. 흑백 화면을 뚫고 희망의 빛줄기가 내려와 무궁화를 컬러로 되살린다. 열여섯 소녀의 일편단심 — 죽음으로 지킨 꽃이 다시 피는 순간. 호돌이가 소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너와 같은 아이가 이 나라를 지켰다'는 묵언의 연결을 표현.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00~03:07

가사 ♪ 무궁화

◆ 장면 설명

해방의 환희 직후, 다시 닥친 비극 — 6·25 전쟁. 폭격 장면 실루엣. 피란민 행렬이 눈발을 끝없이 걸어간다. 검게 그을린 폐허의 서울 전경. 국가기록원·KBS 아카이브 협조. 무궁화가 다시 짓밟히는 시대, 그러나 꽃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뿌리를 버티고 있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07~03:15

가사 ♪ 삼천리 화려강산

◆ 장면 설명

폐허 위로 하늘이 서서히 맑아진다. 카메라가 수직 틸트업하며 내장산 단풍 캐노피를 지나 완벽하게 투명한 가을 하늘이 프레임 가득 채운다. 폐허에서 단풍으로 — 고난을 이겨낸 삼천리의 회복. 호돌이와 소원이 단풍 터널 아래를 나란히 걸어간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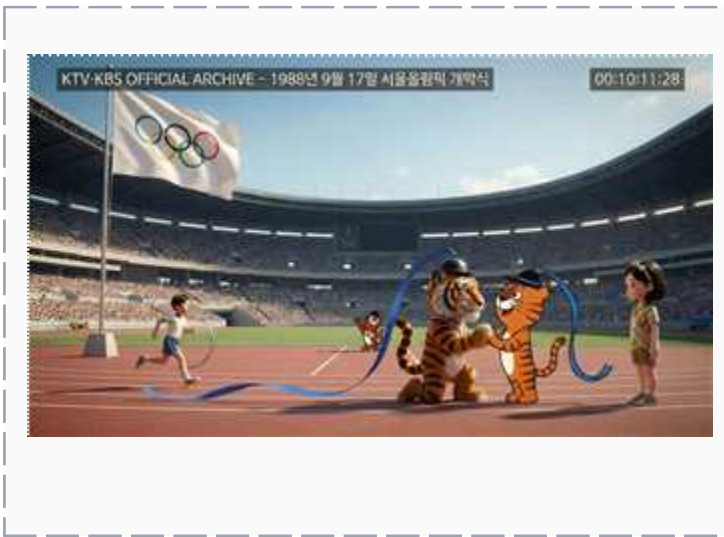
시간대 03:15~03:22

가사 ♪ **대한사람 대한으로**

◆ 장면 설명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 포항제철 용광로 점화 → 현대조선 진수식 → 4.19 혁명 학생 행진 → 5.18 금남로 시민 → 6월 민주항쟁 넥타이 부대 → 태극기를 든 시민의 실루엣.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한 호흡으로 엮은 긴 몽타주 —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사람'의 자화상. 국가기록원·KBS 뉴스릴 아카이브 총동원. 각 장면이 1초 내외로 빠르게 이어지며 리듬을 만든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22~03:30

가사 ♪ *같이 보전하세*

◆ 장면 설명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 KTV-KBS 공식 아카이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오륜기가 게양되고, 굴렁쇠 소년이 텅 빈 경기장을 가로지른다. 카메라가 느리게 팬하면, 트랙 저편에 1988년 오리지널 2D 호돌이가 작은 실루엣으로 서 있다. 43세 3D 호돌이가 천천히 걸어가 자기 과거와 마주 선다.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자, 2D 호돌이가 올라다보며 미소짓는다. 두 호돌이가 앞발을 맞댄 순간 — 2D 호돌이가 빛의 입자로 흩어져 3D 호돌이의 가슴으로 스며든다. 소원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같이 보전하세' —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 3절의 감정 클라이막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30~03:37

가사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 상세 연출 계획 — 아카이브·전통회화 기반

[캐릭터 레퍼런스 첨부: (호돌이) 캐릭터 시트, (김소원) 캐릭터 시트]

[제작 원칙]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식 홍보 아카이브 및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홍보 영상을 1차 소스로 활용 (기업 공식 협조 요청 전제). 실사 확보 불가 시에 한해 한정적 CG 재현. 전체 톤은 박찬욱 <아가씨>의 장인적 미장센 — 기술의 청결함을 한국 영화적 언어로 재해석.

배경: 반도체 생산 클린룸(clean room) 내부. 완전히 하얀, 먼지 하나 없는 초청결 환경. 벽과 천장은 눈부시게 하얗고, 바닥은 반사광 예폭시. 엔지니어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는 흰색 풀바디 방진복(bunny suit)을 착용하고 있으며, 얼굴도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들 — 노광기(lithography), 식각기(etching), 웨이퍼 핸들러 등이 줄지어 있고, 블루와 화이트 LED 라이팅이 공간을 차갑고 미래적으로 물들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를 조심스럽게 집어 들고 검사 중입니다. 웨이퍼는 무지개빛 굴절을 내뿜으며 반사광이 프리즘처럼 빛납니다.

매크로 클로즈업 전환: 웨이퍼 표면을 극도로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미세 반도체 회로 패턴 가운데, 자세히 보면 한 칩 위에 극미세 태극 문양(太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태극의 빨강과 파랑이 선명하게 구분되며, 주변에는 무궁화 꽃잎 패턴이 회로 디자인으로 양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술'이라는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해학 포인트: 호돌이와 김소원도 흰색 방진복을 (조금 어색하게) 입고 클린룸에 서 있다. 호돌이의 거대한 몸집에 꼭 끼는 방진복, 상모는 방진모 아래 우스꽝스럽게 눌러 있다. 김소원은 방진복이 너무 커서 소매가 바닥까지 끌린다. 둘 다 엔지니어의 태극 문양 칩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김소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라고, 호돌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고개를 끄덕인다. — 한국 애니메이션 <오늘이>(이성강)의 온화한 해학 전통.

카메라: 클린룸 와이드 → 엔지니어 미디엄 → 웨이퍼 매크로 클로즈업으로 3단계 줌인. 극도로 샤프한 포커스, 하이키 라이팅. 박찬욱 <아가씨>의 대칭 구도와 장인적 질감 조명을 참조한 한국 영화적 미장센.

스타일: 박찬욱 <아가씨>의 대칭 구도와 장인적 질감 조명 — 기술의 청결함을 한국 영화적 미장센으로 재해석. 캐릭터의 해학은 한국 애니메이션 <오늘이>(이성강)의 온화한 유머 톤.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37~03:45

가사 ♪ 충성을 다하여

◆ 장면 설명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로봇 팔이 정밀하게 조립한다. 조선소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진수된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45~03:52

가사 ♪ 괴로우나 즐거우나

◆ 장면 설명

K-9 자주포 사격훈련의 웅장한 발사 장면. F-15K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 이지스함이 출항하는 와이드 샷.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땅을 지키는 든든한 기상(氣像)을 시각화한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3:52~04:00

가사 ♪ *나라 사랑하세*

◆ 장면 설명

누리호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다.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성층권으로 상승하는 시네마틱 샷.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아카이브 + 3D CG

시간대 04:00~04:07

가사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장면 설명

BTS 스타디움 공연의 항공샷 — 보라빛 야미밤이 별처럼 빛나는 거대한 바다. 기생충·오징어게임 오스카·에미 트로피. 2002 월드컵 거리응원. K-컬처 몽타주.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실사 + 3D CG

시간대 04:07~04:15

가사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장면 설명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짓는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와 농촌, 바다와 산. 모든 시대·장면의 잔상이 빛의 입자가 되어 호돌이와 소원이 주위로 수렴한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4:15~04:23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4:15~04:23

◆ 장면 설명

4절 후렴의 여운이 잦아들며 장면은 다시 김현 디자이너 선생님의 서재로 돌아온다. 여행을 마친 호돌이와 소원이가 푸른 포털에서 빠져나와 액자 밖으로 내려선다. 포털의 푸른 빛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별 입자들이 따스한 앰버빛으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소원의 옷자락과 머리띠가 바람의 잔상처럼 살짝 휘날리고, 그녀의 눈에는 긴 여행을 마친 뒤의 경이와 깊이가 담긴다. 호돌이는 여전히 소원의 손을 잡고 있다. 석양빛이 창문으로 길게 비쳐 들어와 두 주인공의 옆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카메라: 포털 소멸 와이드 → 두 사람의 투샷 미디엄, 얇은 심도.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4:23~04:31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4:23~04:31

◆ 장면 설명

서재의 깊은 석양 버건디·앰버 톤. 호돌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소원과 눈높이를 맞춘다. 그의 큰 호랑이 앞발이 소원의 작은 머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 단정한 단발머리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38년의 세월을 건너온 손길 — 88세대가 알파세대에게 전하는 무언의 약속. 소원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진다. 호돌이의 깊은 눈매에도 자랑과 감사가 어린다. 상모의 푸른 리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따스하게 흔들린다. 카메라: 얇은 심도 미디엄 투샷 슬로 오빗, 역광이 두 캐릭터의 실루엣을 감싼다. 이창동 <시>의 윤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던 그 조용한 송고, 봉준호 <기생충> 결말부의 말없는 감정 여백처럼 — 설명하지 않고 스며드는 한국적 감정선.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

04:31~04:40



주인공 (호돌이) + (김소원)

스타일 3D CG

시간대 04:31~04:40

가사 ♪ (후주) / END

◆ 장면 설명

호돌이가 소원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쥐고 일어선다. 천천히 액자 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의 포토리얼 3D 형체가 서서히 1988년 오리지널 2D 일러스트로 역변환된다 — 털이 평면 선으로, 입체감이 플랫 컬러로. 액자 안에 원본 1988년 2D 호돌이의 아이콘 포즈(앞발 들어올린 상모 인사)로 정지. 소원이 액자 앞에서 작은 손을 흔든다. 그 순간 액자 속 2D 호돌이의 한쪽 눈이 "깜빡" — 장난스러운 윙크. 소원이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린다. 카메라: 호돌이 3D→2D 역변환 미디엄 → 풀백해 서재 와이드 → 창 밖 깊은 석양 → 페이드아웃, "END" 타이포그래피가 태극 팔괘 파티클과 함께 부드럽게 떠오른다.

※ 실사-아카이브-CG 중 해당 장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작 (상세 제작 방식은 본선 시 확정)